

인터넷총국 (홈페이지 http://data.rutc.com)	
후원: (국민은행) 682401-01-338981 차동호(인터넷총국)	
분류	구역공과-2018년 21과
제목	전도자의 삶(본질3)- 마가다락방 언약
성경	사도행전 2:16-21
일시/장소	2018년 5월 27일, 임마누엘서울교회
강사	류광수 목사 (정리: 차동호 목사)

♣ 성경말씀 (사도행전 2:16-21)

- 16/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 17/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 18/ 그 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 19/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 20/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 21/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 구역공과 자료 ♣

♣ 서론- 먼저 나의 영적상태, 나의 영적 현주소 확인!

- 1)전도자의 기준→ 행1:1, 3, 8 (나를 살려라!)
- 2)전도자의 표준→ 영적인 힘부터 얻으라.(성령충만!)
- 3)전도자의 수준→ 세가지 나라를 누리라(행1:3, 마12:28-29, 빌 3:20)

1.이유→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 1)세가지를 본 사람들→ 행1:1 그리스도, 행1:3 하나님 나라, 행 1:8 오직 성령
- 2)세가지를 할 사람들→ 행1:1 그리스도, 행1:3 하나님 나라, 행 1:8 세계복음화
- 3)세가지를 각오한 사람들(행1:14, 행2:1-47)→ 생명, 재산, 이유

2.내용→ 마가다락방의 내용

- 1)세절기 체험→ 유월절(구원), 오순절(성령), 수장절(천국배경)
- 2)행1:8 응답 체험→ 행2:1-47
 - (1)5가지 능력(행2:1-10, 행2:9-11, 행2:14-21, 행2:41, 행 2:42-47)
 - (2)5가지 시간표(행2:1, 행2:5, 행2:18, 행2:41, 행2:46-47)
 - (3)5가지 문(행2:1-4, 행2:9-11, 행2:41, 행2:43, 행2:46-47)
- 3)전도자에게만 주시는 세가지 응답→ 오직, 유일성, 제창조

3.방법- 어떻게 체험해야 하는가?

- 1)오직의 기다림(행1:4, 8)
- 2)오직의 응답(행2:1-13)
- 3)오직의 도전(행2:9-11, 행2:41, 행2:46-47)

♣ 결론- 증인(복음의 능력과 나의 증거를 체험하라!)

(The end)

♣ 구역공과 - 녹취 자료 ♣

♣ 서론

▶ 좀 다 주는 중요한 것이다. 마가 다락방 언약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마가 다락방, 그런데 마가 다락방에 대해서 다 알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걸 모를 수도 있다. 우리는 주로 바르게 산다, 좀 틀리게 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 바르게 살수록 좋겠죠, 그런데 굉장히 바르게 살았는데 틀린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 바른 언약, 틀린 언약(유대인)

바른 언약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살기는 정말 바르게 살았는데 틀린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 있었다. 생각 많이 해야 된다. 역사적으로 증거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꼽으면 유대인이다. 이 사람들은 참 바르게 살았다. 그런데 딱 언약만 틀리게 잡은 것이다.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잡아야 된다.

한국에도 보면 교회들 많이 싸우는 교회들은 언약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삶을 얘기한다. 바른 삶 때문에 많이 싸우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제가 김형길 목사보고 “똑바로 살아” 그러면 “예”라고 대답한다. 내가 잘못할 때는 속으로 욕한다. “자기는 안 하면서?” 이게 사는 사람들의 보통 싸움이고 문제다.

그러나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마가 다락방에 하나님이 바른 언약을 주셨다. 이게 중요하다. 틀리게 살란 말이 아니고 바른 언약을 잡아야 된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틀린 언약을 잡아버리면 틀린 것이다. 내가 아무리 선행을 해도 살인범을 도와주면 나는 살인범이다. 그렇죠? 내가 아무리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남에게 줘서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이 강도라면 나는 강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른 언약을 붙잡는다는 건 그 속에만 있으면 된다.

▶ 서론- 나의 영적 현주소

자, 바른 언약이란 말은 오늘 서론에서 봐야 될 부분들을 꼭 렌턴트에게 가르쳐주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면 된다.

나의 영적 현주소다. 쉽게 말하면 어려운 말 썼습니다만 정확한 복음 안에 있는 것이다. 어디에 말입니까?

1)행1:1, 3, 8(기준)

▶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다. 이게 기준이다. 여러분이 이 안에 있으면 된다. 혹시 과거에 실패했다하더라도 여기에 있으면 된다. 혹시 대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이 속에 있지 아니하면 그건 위험한 결과가 된다. 여러분의 자녀와 후대가 공부를 조금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 속에 있다면 성공한다.

여러분의 후대들이 하버드 대학을 수석 졸업했다 할지라도 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고생이다.

2)영적인 힘(표준)

▶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면 다 가지고도 소용이 없다. 이게 초대교회 표준이었다. 감사한 일이지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으셨다는 건 정말 감사하고도 감사해야 될 일이다.

3)하나님의 나라(수준)

▶ 그리고 뭐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수준이다.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부분이 우리의 수준이다. 참 감사하죠?

▶ 본론- 자, 그러면 마가 다락방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1.이유→ 마가 다락방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 아무도 몰랐겠죠?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엄청나게 성공한 바리새인들 볼 때 처음에 우습게 봤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또 권척들이 여러분을 우습게 볼 수도 있다. 아무것도 없는 게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이 틀린 언약 속에 있다면 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바른 언약 속에 있다면 틀림 없이 그 언약은 성취 되게 되어 있다. 왜 그렇습니까?

▶ 행1:1, 3, 8

이걸 본 사람들이다.

또 이걸 할 사람들이다.

또 이 부분을 전달해야 될 사람이다. 됐죠? 이 자체가 성공이다. 여러분 다시 한 번 하나님께 감사하실 것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으셨다는 자체가 감사한 일이다.

여러분이 뭔가 이익을 노리기 위해서 밥 한 그릇 먹기 위해서 여기 앉았다면 불쌍한 사람이지만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것 때문에 앉았다면 축복 받은 사람이다.

2.내용→ 마가 다락방의 내용

▶ 내용이 나온다. 뭐니까?

세 절기-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란 내용이 나온다. 이 속에는 5가지 능력과 시간표와 문이 들어 있다. 이게 행2장이자. 절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다.

3.방법→ 어떻게 체험해야 하는가?

▶ 그래서 방법은 뭐니까? 방법까지 알고 있다.

바른 언약 가진 사람들은 방법 알고 있기 때문에 오직 기다릴 수 있다. 오직을 기다리는 것이다.
바른 언약 가진 사람들은 오직의 응답을 누릴 수 있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바른 언약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오직에 도전하게 된다. 여러분에게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내가 바른 언약 속에 딱 있는 것이다.

♣결론- 증인(복음의 능력과 나의 증거를 체험하라!)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뭘로 쓰시는가? 증인으로다. 어떻게 말입니까? 평생의 증인이다. 어떻게 말입니까?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여러분의 능력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 되는 역사 일어난다. 알고 봤더니 이걸 영원한 것이다. 확실하다.
▶저는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께 감사하고 우리 램넛해보면 감사하다.
결과는 막을 수 없다. 여러분이 룡을 심었는데 갑자기 갑자기 나는 일은 없다. 여러분이 말이죠, 무를 심었는데 한참 있었더니 아카시아가 올라오고? 그런 법은 없다.

여러분이 어느 날 바른 언약 딱 붙잡고 기도에 뿌리를 내려놔더니 열매는 정확하게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다.

언제 말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확실하다. 낙심하지마시라. 흔들릴 필요도 없다.

▶이 언약을 잡은 사람은 죽음이 왔는데도 흔들리지 아니했다. 어떻게 보면 일부로 스테반은 죽는 걸 선택했을 정도로 강하게 얘기했다. 그 자리에서 말하면 죽는데 거기서 말했다.

자, 여러 명이 돌로 치려고 사형 시킬 돌 들고 스테반 앞에 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얘기했다. 그때 스테반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옛날에 있었던 성경부터 있었던 얘기를 말했다. 옛날에 올라바를 신지자가 나타날 때마다 꺾박하지 아니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약속한대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지 아니했나?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또 그걸 방해하고 꺾박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얘기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죠, 막 이를 갈면서 스테반을 돌로 쳐 죽였다. 그때에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 같다고 했다.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이 인상을 쓰고 죽잖아요, 그런데 천사 얼굴 같았다. 그때 그 자리에 서 있어 같이 돌로 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 가다가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다. 워낙 독한 인간은 하나님이 직접 전도한다. 정상적인 인간 같으면 그냥 황상배 목사님 보내서 복음 전하는데 옛날에 사울은 정상적인 인간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다. 예수님이 직접 건드린 것이다. 눈에다가 빛을 들이 부은 것이다. 그러니 앞이진 것이다. 무슨 이상한 일이 말이죠, 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나 당해봐라. 눈에 빛이 비취지면서 앞이졌다. 그런 데 부르는 것이다. 사울아, 바울 원래 이름이 사울 아닌가? 사울이 그 나라에 습관대로 높은 사람에게 하듯 대답을 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그때 대고 얘기했다. 나는 내가 꺾박하는 예수라. 거기서 완전 바울이 우리말로 졸도한 것이다.

▶제가 옛날에 새벽에 해 뜰 때마다 산에 올라갔는데 사람 죽은 걸 봤다. 제가 꽤 운동 많이 하고 잘 뛰는데 걸음이 안 된다. 나도 모르게 딱 돌아섰는데 거의 기다시피 왔다. 아니, 죽은 인간이 뭐가 겁난다고 좌우지간 머리가 막 서터라. 약 보름 동안 그제 꿈에 나왔다.

▶이 바울을 하나님이 완전히 꺾어버린 것이다. 나는 내가 꺾박하는 예수라 그랬으니까 바울 머릿속에 누가 가장 생각이 났겠는가?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가? 스테반이다. 스테반 돌로 칠 때 증인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부터는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것이다. 한 시대를 바꿔놓았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언약은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한다. 여러분이 바른 언약 속에 있으면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한다.

사건 두려워하지 마시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약한 자 두려워하지마시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 붙잡는데 저는 그런 일 많이 당했거든요?

▶어느 날 내게 막 큰 피해를 주더라. 간단하게 얘기했다. 놔두라. 오케이, 나는 그거 필요없다. 그 사람이 완전 망해버린 것이다. 우리 본부 어렵게 만들고 막 돈도 때 먹고 이런 사람 있더라. 그래서 내가 괜찮다고 했다. 왜냐? 가만히 보니 갚을 능력도 없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지, 내가 무너뜨릴 필요도 없다. 참 놀랄 일이다. 너무나 정확하게 무너뜨렸다. 여러분 다 알 것이다. 너무나 정확하다. 나는 손 한 번 댄 적도 없다. 오히려 손대려고 할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했다.

▶우리는 대부분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성취 되는지도 모른다.

하나님 말씀의 흐름의 키(key)가 뭔지도 모르고 있다. 그걸 오늘 아침에 우리 당회 모일 때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그걸 꼭 알고 계셔야 된다.

▶자, 훌륭한 사람들만 모였는데 복음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그 흐름을 찾아낸 사람이 마틴 루터다. 응답 정도가 아니다. 루터는 힘 없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몰아서 가셨는가?

▶우리 일본에 중요한 사명자들 많다. 일본에는 기독교인이 1%도 안 된다. 그 1%도 모든 종교는 다 좋은 것인데 기독교도 괜찮다. 그래서 나는 기독교 믿는다. 이런 신자가 1%도 안 된다.

그러면 일본에는 말씀이 얼마만큼 흘렀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다. 그러면 뭐해야 되겠죠? 아주 기본적인 복음을 넣어야 된다. 그거 놔두고 신학교에서 모여서 신학 세미나 이런 걸 천 날 만 날 영원히 해도 소용이 없다. 그렇죠? 일본에 대대한 신학자들이 나왔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

▶말씀의 흐름을 봐야 된다. 바른 언약 속에 있으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응답은 열리기를 시작한다. 여러분이 오늘 바른 언약 속에 들어가버리면 여러분의 배후는 산업을 다른 건 이미 응답이 열리기를 시작한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은 떠나기를 시작한다. 그렇죠? 여러분이 바른 언약 속에 들어와버리면 여러분 주위에 사람은 떠나기를 시작한다.

▶우리가 틀린 언약 속에 있으면 저 멀리 있던 사탄도 몰려오게 되어 있다. 여러분이 쓰레기통에 1시간만 앉아 있어도, 동네 파리가 날아온다. 나비 올까요? 온다면 그건 축농증 걸린 나비다.

▶절대로 여러분들 착각하지마시고 당당히 여러분은 언약의 사람이다. 이 사실을 우리 램넛에게 전할해줘야 된다.

나는 램넛보고 말한다. 세상의 소리에 속지마라. 세상에 세상의 성공한 것처럼 공갈치는 공갈에 속지마라. 돈돈 하면서 말약하고 있는 그 말약에 속지마라. 너희는 당당하게 언약 잡고 승리해라. 반드시 언약은 성취되게 되어 있다. 후대에게 가르쳐줘야 된다.

여기 우리 중직자 분들 장로님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은 없는 게 아니라 언약 가진 분들이다. 당당히 램넛에게 알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성공이 뭔지 모른다. 기준을 바꿔줘야 된다. 올라바 성공을 가르쳐줘야 된다. 오늘 분명히 얘기하시는 중에 여러분 배후에 두고 온 현장에 역사 일어나게 될 것이다.

▶바른 언약 잡으시라. 그게 뭘 말입니까?

백부장이 왔다. 내 하인이 병들었는데 고쳐주옵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가? 내가 그러면 가겠다. 백부장이 믿음 있는 사람이다. 오실 필요가 없다. 말씀만 하옵소서. 나도 백 명 부하 있는데 내가 명령 내리면 한다. 주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된다. 네 믿음대로 될지이다. 와보니까 하인이 나왔다.

여러분이 언약 바로 잡는 동안에 여러분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그 말이다.

꼭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하나님, 오늘 치유 되는 날이 되게 해주옵소서. 모르고 있는 병이 있다면 치유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중직자들이 불치병이 있다면 치유 되게 해주옵소서. 각종 암이나 병들이 치유 되게 해주옵소서. 영적인 병이 치유 되게 해주옵소서. 흑암이 무너지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The end)

세계복음화 상임위원회 인터넷총국

①http://data.rutc.com ②http://www.jcking.net

총국장: 김성호 목사 ☎010-3505-5684
실무국장: 차동호 목사 ☎010-5375-9383 ☎3759383@hanmail.net
후원계좌: (국민은행) 682401-01-338981 차동호(인터넷총국)